

## 연금술과 연단술의 차이에서 오는 숨겨진 논리

尙志大學校 哲學科 敎授

최 종 덕

호모사피언스는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신화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되었다고 말한다. 신화의 시대와 달리 이성의 시대는 자연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자연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은 자연을 하나의 자원창고로 본다는 이야기다. 자원창고는 일정한 집을 뜻한다. 그 집은 고정되고 운동도 없는 정지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 자연은 원래 흘러가는 것이며 막힘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운동하는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인간은 그렇게 운동하는 자연을 정지된 고정틀로서 보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고대철학자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연관을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그후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서구의 대체적인 생각을 휘어잡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형이상학이 생기면서 원래의 자연과 형이상학으로 무장된 자연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 자연과 같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써먹기 위해서는 그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왔다갔다하지 말아야하고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운동하는 자연의 모습들이 서구의 철학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문제였다.

원래의 자연적인 모습을 꺾어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자연을 재구성하는 일이 서구의 철학이었고 과학이었다. 하여간 이런 생각들이 서구에 있어서 과학 혁명을 낳았고 산업혁명을 낳았으며 따라서 인간에게 당분간은 물질적인 풍

요로움을 안겨 주었다.

반면에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신과 물질 혹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틀로 되는 배경을 찾을 수 없었다. 보통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성 등으로 말하지만, 그런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해석은 서양의 이원론을 전제한 다음 우위비교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동양에서도 자연과 인간을 다른 체계로 본다. 다만 자연의 운행방식과 인간의 운행방식이 같은 틀(機, 동형성; Homomorphism)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주역은 자연의 운행방식을 그런 책이다. 서양과 달리 자연의 설계자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세계의 창조자가 없다. 자연 운행의 원동력은 서구의 신과 같이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체적인 운동성(혹은 전문적인 개념으로는“조직성”)에서 나온다. 이러한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서구운동론에서 볼 때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생각이다. 어떻게 이점을 이해해야 할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자전거가 앞으로 가고(운동) 있지 않다면 서있을 수 없듯이 운동 자체가 자연의 모습이며 정지된 자전거는 사실 운동하는 자전거를 사진으로 찍은 한 컷트일 뿐이다. 자전거는 그냥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서구의 기하학적 이성은 움직이는 자전거를 사진으로 찍어 그 사진의 컷트들을 모아서 자전거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서구이성은 자연을 미분화시키고 그 미분화된 단위들을 다시 모아서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바로

자연과학의 주요한 배경정신이 되었다.

운동의 원동력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갖는 일은 결국 당장의 구체적인 대안을 주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오만함을 치료할 수 있는 철학적 치료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운동과 대상을 함께 보는 주역의 자연관은 자연과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의 원동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운동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서 우리 앞에 있다. 대상과 운동을 하나로 본다는 생각은 인간의 마음이 밖의 대상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같다. 즉 대상과 운동이 하나라는 생각은 외부의 자연적 대상을 미적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 자체를 감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동양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보는 자연이 따로 저기에 혹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나로부터 나오고(發) 나도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대상과 마음을 밖과 안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을 말할 때, 이미 자연을 업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송명 이후 주자학에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행위 속에서의 인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운동이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지행합일은 이점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도가와 유가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물론 불가와 유가의 인간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간의 운동 혹은 인간의 운행방식은 원래 자연의 자기운동적인 운행방식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자연의 운행방식과 같게 된다. 미아리 고개의 동양철학관에서 주역의 책을 놓고 인간을 계산하는 일이(주역의 상수학)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서 본다면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연의 운행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인간의 운행을 알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유가에서는 이렇게 자연의 운행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인 위에 성인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인간욕심의 대소사에 그치면 미신이고 흑세무민하는 것이지만, 인간

의 욕심을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나 자신을 위상시키는 작업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인간학적 연구주제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많은 경우 현재의 환경위기가 기계적 산업문명에 원인을 두고, 그러한 기계문명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나쳐서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계문명의 대안으로 곧장 동양의 마음을 접근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동양의 마음은 출발부터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천의 논리학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 즉 수양론의 범주에서 동양의 마음을 다루어야 하며, 또 그 수양론은 넓은 의미의 사회철학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성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철저하게 개인의 마음을 사회의 마음에 투영시키는 작업이다. 이 문제를 나는 서양의 형이상학적 혹은 기하학적 마음과 비교하기 위하여 연금술과 연단술의 상징성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려 한다.

서양의 연금술은 간단히 말해서 물질창조를 위한 시도였다. 그것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술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되며 시대의 물질적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금술은 수은류를 금으로 바꾸는 작업으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금은 자본축적의 대표적인 물적자원이었다. 금은 고도의 안정된 화학물질로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은 알려졌지만 그때는 바위에서 소금을 만들 듯이 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금은 제후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자본이었으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와 같은 연금술의 역사는 사실 중국이 더 앞선다. 중국은 이미 진대부터 연금술은 보통 연단술이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중국의 연단술을 서양의 연금술과 비교하면 안된다. 방법론 자체가 틀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기 자체가 틀리다. 서양의 연금술은 물질적 부를 위해서 시도한 것이지만 동양의 연단술은 물질적 부와 관계가 없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동양의 연단술은 도교와 연관된 수양론의 일환임을 알아야 한다. 도교 수양론에 있어서 수양은 천인

즉 신선이 되 신선은 불로장생의 상징이다. 서구에 있어서 신화의 범주에서 초자연적 존재를 상징하거나 후일 이성의 범주에서 형이상학적 존재를 상징하는 마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한 것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생각했던 완전성이란 서양처럼 정지된 절대자가 아님을 앞에서 이야기했다. 역동적 자연이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의 지위가 확보된다. 어쨌든 동서양을 통해서 좀더 완전한 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동양의 수양론은 서양처럼 인간의 이성 혹은 기하학적 정신만이 완전한 형이상학적 존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완전자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확히 말해서 마음과 몸이 함께 한다가보다는 하나의 인간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도교에서 말하는 수양론은 내단과 외단이 같이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내단은 요즘 말하는 내공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내공법에는 기의 마음의 단전법에서 자연에 대한 조망력을 갖추는 일 그리고 인사(人事)논리를 확보하는 일을 포함한다. 또한 외공법은 환단을 만들어서 복용하는 일, 기의 몸의 단전법 등을 말한다.

여기서 환단을 만들어 복용하는 일이 연단술과 직접 연관된다. 환단 즉 신선환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중국의 연단술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연단술은 어떤 물질적 부를 피하거나 단순히 진시황제 이야기처럼 불로장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 혹은 신인이 되기 위한 과정적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신선환의 주성분은 요즘 환경문제와 연관하여 많이 논의되는 중금속이다. 즉 주로 주사광(朱砂鑛)을 말한다. 주사는 수은과 유황의 합광으로서 중독성이 분명히 있지만 치사량과 약효의 경계점(critical point) 이하에서는 놀라운 신체약리작용이 있다고 믿었다. 홍콩 SF 무협영화에 나오는 무술기인의 얼굴색깔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대개 수은이나 납에 의한 반중독 상태의 흰 색깔의 뜬 얼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丹H는 바로 Hg '단'자이다. 주사나 금의 색깔은 비슷한 붉은 색이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홍콩영화가 아니라 중국의 연단술을 서양의 연금술의 맥락에서 보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동양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서양처럼 초현의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주관자가 아니며, 초월 혹은 초자연적인 무엇을 찾는 신비의 마음이 아니다. 연금술의 마음은 형이상학적 이성에서 분리된 물질의 방향속에서 태어난 극단적인 물질론의 일환이지만, 연단술의 마음은 수양의 기나긴 장정 속에서 잘못 미로로 들어선 실천의 마음의 한 방식이었다.

서양의 마음은 자연을 미분해 놓았다. 미분함으로써 하나의 자연을 원자화시켰고 원자화된 자연을 합쳐서 다시 원래의 자연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서양의 마음은 뉴턴역학을 탄생시켰으며 인간의 사회를 원자화된 인간들의 계약관계를 잘 만들어 놓았다. 서양의 마음은 관조하는 theoria의 마음이다. 그래서 객체와 떨어져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력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과학을 잉태하였다.

반면에 동양의 마음은 sympathy의 마음이며 객체 안에서 객체의 고뇌와 변화를 같이 이해할 수 있으나 멀리서 theoria가 안되기 때문에 서구와 같은 과학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양의 마음은 너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자연의 마음과 通道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이제는 동양의 마음과 서양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실제로는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서양의 논리와 동양의 마음으로 양쪽을 특징화시켰지만 동서양이 특화된 어떤 성격으로 분화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이제는 단지 양쪽 스펙트럼 상의 양극을 상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마음의 스펙트럼은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와류속에서 마음의 갈 길을 헤메고 있다.

우리는 동양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철학의 akda은 그만 이야기하고 사회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마음 자체가 사회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자연화된 자연을 말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과학까지도 포함한다.